



제21회 호남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국내·외 마라토너 1000여명이 21일 광주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호남마라톤 대회 자원봉사자들이 21일 영산강변에서 마라토너들에게 물과 과일을 제공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화보=김양배·나건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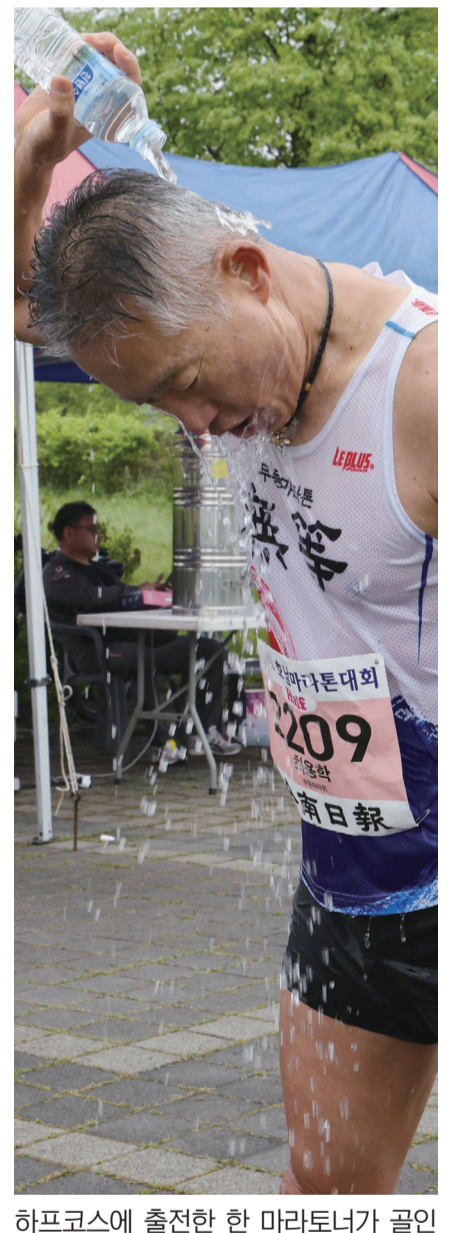
동호회 마라토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km에 출전한 남성 마라토너.



10km에 출전한 여성 마라토너.



하프코스에 출전한 한 마라토너가 끝난 후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호남마라톤 대회에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페이스메이커 '광화문페이싱' 팀.



제21회 호남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국내·외 마라토너 1000여명과 양대동 광주시육상연맹 상임부회장, 문병익 전남일보 이사 등이 21일 광주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광장에서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